

계란 물류센터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



▲ 파머스 권규섭 대표

파머스(대표 권규섭)GP센터 및 가공공장 준공식이 지난 26일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소재 공장에서 양계인 및 관련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

파머스는 지난 1991년 강원도 삼척에 육계 7천수를 시작으로 양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80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며, 1일 50~60만개의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급성장을 보여주었다.

권규섭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'최근 한미 FTA, AI, 항생제 문제 등 양계업계가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씩 풀어나갈 때 우리 채란업은 결코 어둡지 않다고 전제하고, 이번 GP센터 및 가공공장 준공을 계기로 보다 위생적이고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해 나갈 수 있음'을 자신했다.

파머스는 현재 저콜란, 환선란 등을 전국의 E마트 등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으며, 이번에 새롭게 간식용이나 밀반찬으로 즐겨먹는 지단을 생산 공급하면서 새로운 마케팅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. 파머스는 산란계 및 가공공장 이외에 유기질 비료공장도 함께 운영하면서 친환경 축산업을 실천하고 있다.<홍보팀>

